

광주시체육회 “홈트레이닝으로 코로나 이기세요”

시민 건강 돌보기 영상 제작
체육지도자·트레이너 등 참여
실내서 쉽게 따라하도록 구성
오늘부터 홈페이지 통해 제공



광주시 생활체육지도자, 트레이너들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이 건강을 돌보면서 활력을 얻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시체육회는 “코로나19로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체육지도자와 함께 ‘홈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홈트 서비스는 운동 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제공된다. 홈트 영상은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협업해 제작했다. 생활체육지도자, 트레이너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3분 안팎 분량이다. 프로그램은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비롯해 워밍업, 본 운동, 정리운동 등 누구나 실내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강수초 생활체육지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며 “홈트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속할 방침이다. 운동의 생

활화를 유도하고 스포츠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준 시체육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

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관리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코로나19 성금 마련” 스포츠판 ‘위아 더 월드’ 떴다

자선 사이트 ‘올인챌린지’ 개설
스포츠 스타와 1일 체험·골프·농구 등
기부금 내고 다양한 프로그램 즐겨

역대 싱글 앨범으로는 8번째로 많은 2000만장이 팔렸고, 위아더월드 캠페인은 지금의 환율로 1억 5000만달러(약 1824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모아 대성공을 거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질병 사태에 직면한 2020년, 스포츠판 ‘위아더월드’가 15일(한국시간) 출범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패니틱스’ 창업자 마이클 루빈은 5개 기관과 손잡고 코로나19와의 싸움 최전선에서 일하는 영웅들을 비롯해 기아에 시달리는 노약자를 위한 자선 사이트 ‘올인챌린지’(AllinChallenge)를 개설했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180만달러(22억원)에 근

접하는 액수가 모일 정도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용자들은 경매에 참여하거나 일일 기부금을 내고 승자를 뽑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입이 썩 벌어질 정도로 프로그램이 훌륭하게 구성됐다. 미국프로야구(MLB) 스타 앤서니 리조(시카고 컵스)와의 1일 체험, 미국프로풋볼(NFL)에서 쿼터백으로 이름을 날린 페이튼 매닝과 고향에서 즐기는 골프와 저녁 식사, 미국프로농구(NBA) 팔리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가드 벤 시먼스와 함께하는 5:5 농구, 골프 선수 바바 왓슨, 자동차 경주 선수 테니 헬린과의 포션 골프에 이은 내년 데이트나 500경주에서 햄린 차량 탑승 등이 팬들의 참여

를 기다린다. 미국 언론은 자국 스포츠 아이코닉은 물론 연예인, 예술가, 유명인, 구단주 등이 올인챌린지에 참여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수익금은 100% 자선 기관에 기부된다고 소개했다. ‘올인챌린지’ 설립자인 루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 ‘최고의 스포츠 경연’이라는 참여 프로그램을 내놨다.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패니틱스 10만달러 어치 상품권 1장, NFL 슈퍼볼 입장권 2장, NBA 우승 결정전 1차전 입장권 2장,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우승 결정전 1차전 입장권 2장, MLB 월드시리즈 1차전 티켓 2장, US오픈테니스 입장권 2장, 올림픽개회식 입장권 2장 등 ‘메가 스포츠 패키지’ 티켓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 루빈은 “세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업과 스포츠가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올인챌린지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PGA 6월 중순 재개하나 무관중 경기로 열릴 듯



미니골프대회로 몰린 선수들

코로나19로 PGA투어 중단이 장기화된 가운데 14일 미국 미니골프 대회인 아웃로 투어 에어로우헤드 클래식에서 출전한 제리미 폴이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6월 중순 ‘무관중 경기’로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15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지난 3월 중단된 대회가 6월 11일 찰스 슈와브 챌린지를 시작으로 시즌이 재개된다”고 전했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는 원래 5월 21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이 보도에 따르면 3주 뒤로 밀려 열리는 것이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를 비롯해 처음 몇 개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관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골프다이제스트는 덧붙였다. 이미 4대 메이저 대회의 일정을 변경한 PGA 투어 사무국은 조만간 남은 대회의 일정을 추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플랜B는 없다” 조직위, 재연기 가능성 일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회를 1년 뒤로 미룬 도쿄하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플랜 B(대안)는 없다”고 재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다카야 마사 도쿄조직위 대변인은 전날 외신기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도쿄조직위는 2021년 7월 23일에 올림픽, 8월 24일에 패럴림픽을 개막한다는 전체 하에 일을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대회를 다시 연기해야 할 상황과 관련해 “플랜 B는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자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우려해 올해 7월에 열기로 한 2020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3월 말 합의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12만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 대륙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구촌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확산 사태도 심각하다. 또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15개월 후인 내년 7월에 하계올림픽을 여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무토 도시모 도쿄조직위 사무총장도 10일 내내 올림픽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카야 대변인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새 날짜가 이제 막 정해졌다는 점”이라며 “도쿄조직위와 관련 단체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독일 매체 디벨트와의 12일 인터뷰에서 올림픽 재연기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쿄조직위가 내년 여름 이후로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소개해 여론을 남겼다. /연합뉴스

“UFC 5월 10일 대회 개최” 화이트 대표, 장소는 공개 안해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5월 10일에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표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가장 먼저 돌아오는 메이저 스포츠 단체는 UFC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UFC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대회 4개를 잇달아 연기해야 했다. 특히 이달 19일로 예정된 UFC 249가 불발되며 화이트 대표는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UFC의 다음 남버링 대회는 5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UFC 250이다. 브라질에서 대회를 불허할 게 명확하지만, 화이트 대표는 5월 10일이 UFC가 복귀하는 날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 파이팅 카드를 맞추고 있다. 애초 UFC 249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토니 퍼거슨과 저스틴 게이치의 라이트급 타이틀전, 헨리 세주도와 도미니크 크루즈의 밴텀급 타이틀전이 확정적이다. 여자 페더급의 아만다 누네스와 펠리시아 스펜서의 대결도 파이팅 카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 대표는 웰터급의 도널드 세로니와 앤서니 페티스에게도 출전 승락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 대표는 다만 대회 개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ESPN은 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른 더 도어
3관	라라랜드, 1917, 인비저블맨
4관	서치 아웃
5관	라라랜드, n번째 이별중
9관	오른 더 도어, 로건, 더 타겟
7관	씨네캐슬 서치 아웃, 데드풀, 라라걸
8관	씨네캐슬 오른 더 도어, 원 데이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